

함평군,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상가활성화 단위사업 일환 온화한상·건강드림카페 등 지역특화 자원 활용한 청년상가 개업

전남 함평군이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인 연계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함평군은 12일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상가활성화 단위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청년임대상가 ‘온화한상’이 지난 4일 개업했다”고 밝혔다.

온화한상은 지역특화 자원인 함평전지 한우를 활용한 한우 테마 창업상가로 청년창업 희망자 모집, 인큐베이팅 경영컨설팅, 외식업 역량 강화 과정 등을 거쳐 문을 열었다.

대표메뉴는 한우비빔밥, 소담육회, 우삼겹전골한상, 단짠우삼겹덮밥 등 건강을 담은 한우 요리를 준비했다. 여기에 신선한 계란과 들기름을 곁들이는 특별한 식사법 안내를 더해 방문객에게 건강한 맛과 먹는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학교면 도시재생 예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건강드림카페’도 카페에서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확장 운영을 시작하며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소득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하며 지역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건강드림카페는 맑고 담백한 한우 양지 육수, 신선한 과일을 숙성시켜 만든 비빔장, 국산 메밀로 직접 만든 밀면 등 모든 레시피를 자체 개발해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청년 창업자인 임세영 온화한상 대표는 “함평군 지원 덕분에 고향에서 아이를 키우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상생 상가로서 지역 상가와도 협업해 상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건강드림카페’를 운영하는 정춘희 마을조합 대표는 “카페가 삶터이자 일터가



되어 주민들과 지역 상생에 이바지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

역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공동체와 지속가능한 정책사업도 유치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미래 농업은 스마트하게! 순천시, 스마트팜 실습 교육 실시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과 협력, 현장 중심 교육으로 미래형 농업인재 양성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년 순천시 농업인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순천대학교와 협력해 스마트팜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관내 농업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농업 기술을 직접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은 실제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한 ▲파종 ▲육묘 ▲정식 ▲작과량 조절 ▲

선별 ▲수확까지 작물 재배의 전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자동화 시스템 사용법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농업 의사결정 능력 향상도 기대된다.

실습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은 “자동화 시스템이 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해 작물

생육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운 것이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 남은 실습 교육을 통해 스마트 농업기술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정성인 기자

나주시의회,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1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파 시장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할 것과 ▲농가의 생존권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해원 의원과 공동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최근 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 여건으로 양파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양파 가격이 급락해 농가 피해가 심각해졌고 일부 농가들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재배 포기까지 우려되며, 정부가 매년 3만 톤 수매·비축, 4천 톤 출하 제한 등 수급 안정 대책마저도 효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양파 수급 불안



정은 단기적인 시장개입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실적인 양파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유통 지

원 확대 및 소비 촉진 정책을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6월 9일 구례섬진아트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위생·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구례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위생등급제 추진사항 안내, 덜어먹기·남은음식 재사용하지 않기·나

구례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친절 교육

트룸 절감 건강식단 실천하기·어린이 식생활·기호식품 안전관리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고객 응대 친절 서비스, 원산지 표시

방법 등도 안내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식품위생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주의 책임

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2025년 하반기 국제 철인 3종 경기와 2026년 전라남도체육대회가 구례에서 열리는 만큼, 관광객과 선수단이 안전하고 청결한 외식환경에서 구례의 맛과 따뜻한 서비스를 경험하며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행복한 한끼를 응원합니다.

광양시, 가족친화 직장 분위기 조성 캠페인 실시

“직원 여러분의 행복한 한 끼를 응원합니다”

광양시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 여러분의 행복한 한끼를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간식 제공을 넘어 직장 내 배려와 존중, 공감의 문화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동료와 잠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쉽고 공감’이 있는 일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직장’을 만들 고자 하는 취지가 담겼다.

12일 오전, 시청 본청과 의회 청사 입구에서는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함께 정인과 시장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빵과 음료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정 시장은 “행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자”며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강조했다.

광양시는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터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꾸준히 힘써, 2020년 1차 재인증, 2023년 2차 재인증을 받았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기 퇴근문화를 확산하고, 남녀 직원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물품 지원, 전 직원 대상 국내 문화탐방, 노부모 봉양 효도관광 등 다양한 가족 참여 사업을 운영해온 광양시는 앞으로도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직장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 대부분을 보내며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삶의 중요한 터전”이라며,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 따뜻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담양군,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기한은 6월 30일까지

연납·비과세 차량 제외, 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비대면 납부 가능

담양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1,182건, 총 2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단, 연초에 연납을 신청해 이미 납부한 차량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